


공동체 소식



**연중 제29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10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본당 평협회

- 일 시: 오늘 교중미사 후.

본당 총구역회

- 일시: 10/23(주일) 교중미사 후.
- 구역반 편성: 본당 구역반을 새롭게 조정하였습니다.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어느 구역반인지, 반장님이 누구인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 총구역회의 후 각 반별로 반모임을 갖겠습니다.


'스톤 채플(Stone Chapel)' 건물보수기금 모금에 정성껏 협조바랍니다.

- 기준금액: 300불/1가정 이상.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 장 소: 본당 나자렛관.

본당 '평일미사' 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성인 말씀

목주기도는 인간에게  
빛을 주고 길을 안내하며  
하느님 은총에 흠뻑 젖게 합니다.  
목주기도의 힘은 대단히 크고  
그 결실은 풍부합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62	215	169	254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김준영 요셉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정예찬 미카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녜스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신혜경 마리아	박희영 카타리나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신혜경 마리아	박희영 카타리나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차 주	백문주, 최은미, 박옥희

헌금 봉사자

금 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9	75명	393불	800불
(총 3 세대)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750불, 총합계: 4,8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회 장 임창주 베드로  
M: 913.961.5166  
ch01yim@hanmail.net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우리는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기도하기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졸곡 조르는 과부의 비유를 드시며,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선포하기로 다짐합시다.

## 성화해설

### 갈릴래아 산에 나타나심 (두 치오, 1308-1311년, 두오모 오페라박물관 소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은총의 시간인 신앙의 해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도록 합시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7,8-13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였다.>



-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눈을 들어 산을 보노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리오?  
나의 구원 주님께에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 그분은 너의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리라. 잠들지도 않으시리라. ◎
-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너의 오른쪽에 계신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
- 주님은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신다. 그분은 너의 목숨 지켜 주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3,14-4,2  
<하느님의 사람은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8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부르짖을 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신다.>

# 쉐 마

##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 끊임없이 청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를 위해 과부와 재판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재판관은 비록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과부가 끊임없이 청하자 그녀와 그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리다”로 번역한 그리스어 ‘엑디케오’는 “복수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부는 자기 이득을 좀 더 챙겨달라고 청한 것도 아니고, 불의한 것을 청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억울하게 당한 자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잡아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재판관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귀찮아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 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재판관도 귀찮아서 과부의 청을 들어 주는데, 하느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이들의 간청을 과연 내버려두시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선택된 이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며(본기도) 의롭게 살다가 겪는 억울한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광야에 들어선 뒤 닥친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정의를 세워달라고 청하기보다,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며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그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독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서는 다시금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하느님이 아니심을 드러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당신이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으라고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들은 하느님께 계속 반항을 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우리도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마다 하느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기보다 그런 어려움을 없애 주십사 청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사 간청하며, 그런 청을 들어주지 않는 하느님을 외면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사주팔자나 운세를 보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무당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화답송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구원은 오직 주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삶의 인도자이시고,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2독서의 사도 바오로는 특별히 성경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삶에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가르치고 꾸짖으며,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환호송은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

- 영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 사랑을 외친 호세아 예언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결혼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 짓을 하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였고, 호세아는 이 우상 숭배를 마치 간음과 같은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하느님은 디블라임의 딸 고메르를 아내로 맞아들여 자녀들을 낳은 호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호세 1,1-9

호세아는 하느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였고, 그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세 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부인은 부정을 저지르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쓰라린 아픔과 특히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생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빠져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 남편의 고통은 짐작도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서는 호세아에게 정부와 눈이 맞아 놀아난 아내를 찾으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되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호세 3,1-5

호세아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체험을 통해 오히려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토속 종교인 바알신앙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간 그의 부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민의 정을 버리지 못한다고 호세아는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도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예언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호세 11,8-11

호세아 예언자는 BC 8세기 중엽부터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칠 것을 권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징벌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개인적인 고뇌와 불행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적 사랑의 강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묵상

## 밤낮으로

밤낮으로 누군가를 찾는 것은  
밤낮으로  
그 사람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사람 생각만 한다는 것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밤낮으로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루카 18,7)

- 임의준 신부 3